

## 刊 行 辭

李 萬 甲

(圖 書 館 長)

서울大學校가 冠岳캠퍼스로 移轉하면서 綜合化의 一環으로 圖書館도 名實相符한 綜合圖書館으로 擴充됨에 따라 職制를 改正하여 本來의 奎章閣圖書와 一般古圖書, 一簣, 가람, 想白 文庫 中の 古圖書를 主管하는 獨立된 部署를 新設하게 되었으며 그 名稱을 奎章閣圖書管理室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東裝 本人 古圖書의 主軸을 이루고 있는 것이 奎章閣圖書이며 奎章閣은 正祖大王이 創設한 王立圖書館으로서 우리의 貴重한 文化遺産의 代名詞처럼 되었을 뿐 아니라 奎章閣圖書 以前의 古書와 古文書 冊板 등도 함께 子孫萬代에 傳承해야 할 貴重한 文化財이므로 奎章閣이라는 名稱으로 包括해서 保存·管理·利用에 萬全을 期해야 할 使命을 切感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圖書館一層에 넓은 展示室과 閱覽室 그리고 二層에 獨立된 書庫를 갖추게 되었으니 劃期的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典籍文化財寶庫로서의 名과 實이 奎章閣이라는 名稱을 繼承하기에 不足함이 없게 되었다.

또한 奎章閣圖書는 남김없이 整理되었으며 圖書目錄이 出版되었으므로 國學研究를 위해 不便없이 利用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解題事業도 進行 중에 있다. 奎章閣圖書가 앞으로 當面한 問題는 利用에 最大限의 便宜를 提供하는 일과 保存·管理에 萬全을 期하는 일이다. 利用의 面에서는 우선 唯一本 中에서 貴重한 資料를 影印·刊行하여 學者들이 쉽게 接近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는 것이고 保存·管理의 面에서는 길이 傳承하기 위하여 姑息的인 管理方法을 止揚하고 科學的인 施設과 方法에 의하여 保存·管理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國學研究를 위한 中樞的 役任과 機能을 十分 發揮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도록 努力하고 있다.

奎章閣이 創設된 것은 朝鮮 正祖 元年(西紀 1776年) 9月 25日(陽 11月 5日)

이다. 今年이 그 創設 二百周年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아울러 서울大學校 開校 三十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紀念하기 위하여 貴重圖書展示會를 가졌다. 특히 오늘날 奎章閣圖書를 비롯한 典籍文化財가 지닌 文化的 價値를 再認識하는 뜻에서 이 紀念論集을 엮어 二百周年紀念에 가름하게 되었다. 保存과 書誌에 관한 斯界學者의 論考와 圖書館實務者의 問題意識을 담은 이 論集이 斯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二百周年紀念의 뜻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1976年 11月 5日